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5호 | 2022년 12월

—〈 차 례 〉—

1. 〈논단〉
2. 〈자유기고문〉
3. 〈신임교원 기고문〉
4. 교수회 활동 보고
5. 단과대학 평의원 명단

논단(1)

“암울한 노동의 미래”

김용원(경제학과, 대학평의회 의장)



노동력이 상품으로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을 갖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은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2022년 8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2천 170여만 명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금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라는 독특한 노사관계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여타의 선진 산업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요된 신자유주의의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즉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전통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고용불안이다.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은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 사회보험료 분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신자유주의가 유입된 이후 노사관계는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 개방화, 민영화, 자유경쟁, 노동 유연화 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와 함께 기업들은 국내의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감소시켰으며, 경쟁의 격화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더욱 증가시키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축소시켜 왔다.

최근에 와서 기업들은 특수고용직 노동,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을 통

해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전통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각종 비용을 수반하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시켜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을 선호하게 되어 이것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플랫폼 노동자 규모에 대한 조사인 고용노동부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19만 7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전형적인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니고 근로시간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갖기는 하지만, 임금노동자와 같은 종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노동자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고숙련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제나 고용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호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노동 관련 법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의 효율성 제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명분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계속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흔들린다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줘야 하나?’ 벌써 마음이 무겁다. 현재로서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이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 편입될 것이 분명하기에...

논단(2)

“원더풀 2022년”

이희영(사회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로 사회과학대 학장이라는 보직을 맡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로서 단과대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안 둘 사이에 적지 않은 긴장과 균열이 있음을 체감하였다. 어쩌면 연구자와 교육자 사이의 거리와 갈등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과학(sciences) 혹은 사회과학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비판(criticism)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M. Foucault)에 의하면 비판은 자기 수양이다. 이때의 비판이란 현실의 다양한 입장과 태도 중에서 이것과 저것을 갈라서 옳고 그름을 구별 짓는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이론이나 현상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론이며,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바로 이 순간’에 있는 나의 태도와 에토스에 대한 물음이다. ‘세계 속의 존재’인 개인은 자신이 속한 우연적인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자신을 압도하는 혹은 유혹하는 세계가 어떤 사회인지 관찰하고, 거리를 둘 수는 있다. 바로 이런 태도와 입장을 통해 이론적 혹은 실천적으로 ‘현재 여기에 있는 나와 우리’이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와 우리의 관계를 창조할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이것을 자발적 불복종의 기술 혹은 숙고된 불복종의 기술이라고 했다.

때때로 나는 ‘사회학과 교수이자 사회과학대 학장으로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우리 대학이 처한 입시 상황, 편제 조정, 예산 부

족 등의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정책, 디지털 혁명과 기후 위기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좌충우돌하며 짧은 경험과 부족한 능력 탓으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학생들에게 ‘진심’일 수 있는 선택, 교수님들과 한 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 각 부처나 다른 조직과 한 번 더 소통해 보는 시도 등을 되새겨볼 따름이었다. 어떤 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성과’를 위해 과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속 경고를 떠올리기도 했다.

오래된 영화 한 편이 생각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1998년 작품, <원더풀 라이프>에서는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는 림보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스스로 가장 행복했다고 여기는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은 그것을 안고 다음 세상으로 떠난다. 영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관계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관객인 우리에게 던진다.

만약 “올해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 소소한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대부분 혼자 있었던 순간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음식 등을 나누며 보낸 시간이다. 좀 더 긴 시간을 돌아보면 간단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가기는 했지만, 고생을 나누며 서로에게 애썼던 일들이 생각난다. 그렇게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었던 것 같다. 올해 나의 불능과 무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와 학생들, 함께하는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작은 위로와 마음을 나눈 기억을 돌아보는 연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유 기고문

모두가 가지고 있는 「伸び代(Nobishiro)」

김봉정(일본어일본학전공 교수)



일본어일본학이라는 전공 특성상, 일본 기업 관계자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있다. 일본 기업에서는 (아마도 그간의 데이터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성실하며 일을 잘 한다는 좋은 편견이 퍼진 덕분인지, 요즘 학생 추천을 요청하는 일본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실감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의 관계자분들께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키워드가 ‘성장 가능성’이다. 한국 기업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완성형 인재를 원하지만, 일본에서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성장형 인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잘 알고 계시듯) 언어에는 그 나라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이 크게 반영되는데, 일본어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나라 특유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어, 일본어에서는 하나의 단어(혹은 표현)로 정착되어 쓰이지만, 한국어로는 그에 꼭 맞게 대응하는 단어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遠慮のかたまり」(직역: 사양의 덩어리-함께 음식을 먹다가 서로 사양해서 마지막까지 아무도 먹지 않고 남은 하나), 「欠席裁判」(직역: 결석 재판-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 예) 팀 활동에서 그날 결석한 사람을, 모두가 하기 꺼려하는 발표자로 정해버리는, 마치 재판 결과를 내리는 것) 등이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쓰고, 또 빈번히 언급되는 장면이라 이런 상황을 간단히 나타낼 단어가 필요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종류의 표현 중에, 내가 특히 좋아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하며 항상 머릿속으로 되뇌는 말 중 하나가 「伸び代(Nobishiro)」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앞으로 성장, 혹은 발전을 할 여지·가능성”으로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시 서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일본 기업에서는 이 「伸び代(Nobishiro)」가 느껴지는

인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伸び代(Nobishiro)」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열정, 과거의 성과에서 읽어낼 수도 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누군가는 오히려 「伸び代(Nobishiro)」가 매우 큰 사람이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내가 유학 시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들은 단어로, ‘앞으로 김상(さん)은 이 일에 있어서는 「伸び代(Nobishiro)」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라는 말이 큰 힘이 되었다.

MZ세대를 둘러싼 여러 부정적 평가들도 많지만, 한명 한명 들여다보면, 여러 상황에 지쳐 그냥 잠들기 전 인터넷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 먹는 것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는 나와 똑같은 사람, 거기에 더하여 앞으로 크게 발휘될 여러 분야의 잠재 가능성을 품고 있는 젊은이라 생각된다. 나의 부족했던 (지금도 부족하지만) 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큰 「伸び代(Nobishiro)」를 품은 젊은이를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임하고자 한다.

신임교원 기고문

“새로운 시작 그리고 대구대학교”

박광현(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대구 토박이가 대구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줄곧 성장하였지만, 대구대학교와는 큰 인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대학 시절 하나의 인연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풍물패를 하였는데, 4학년 말 즈음해서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 위치한 대구광명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를 가르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구광명학교는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으로 대구대학교 설립자인 이영식 목사가 1946년 처음으로 설립한 대구맹아학원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일일이 북, 장구, 팽과리를 만지게 하고 채를 하나하나 직접 손에 쥐어주며 지도했던 기억이 대구대학교의 첫 수업 교실에 앉아 있는 장애학생을 보자마자 뇌리를 스치며 떠올랐습니다. 당시 지도했던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에 지체장애·지적장애 등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이 많아 장애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처음으로 가르치며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보람찼던 당시가 주마등처럼 회상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와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대구대학교와 저와의 관계 사이가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타 학교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애 학생들을 보며,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또한 더 낮은 곳으로 향할 때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할 때만 해도 교수라는 직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전공을 잘 살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막연함 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긴 대학원 생활과 여러 직장생활을 거치며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과 희망들을 대학교 교

수 신분에서 가장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수에 도전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부임하니 초임 교수에게 많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령인구는 날로 줄고 있고, 각 전공은 전공마다 흥망성쇠의 그래프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들은 지역사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연동되어 일어나니 정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의 고민은 교수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 같지만 처음 등교할 때의 그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난관들을 이겨내고 대학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가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구대학교에서 운명처럼 느꼈던 낮은 곳을 향하라고 하는 계시 아닌 계시를 저의 전공에 잘 녹여내면 학생, 대학, 지역사회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이제 임용 후 첫 학기가 마무리되어갑니다. 새로 모든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니 수업이 많은 날의 전날은 새벽까지 남아서 수업 준비하는 것이 루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는 잊고 살았던 별빛과 함께 아름다운 교정을 감상하는 것으로 피로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초짜 교수의 정신없는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금 첫 수업의 마음가짐을 다잡아봅니다.

교수회 활동 보고(2022년 10월~11월)

9월 16일 : 대학 경영의 비전과 방향을 요구하는 교수회 평의원회 개최에 따른
교원 의견 수렴 공지문 공지

9월 26일 : 교수회 평의원회 개최
- 총장참석 학교경영에 대한 사안 질의응답

10월 5일 : 교수회 통신 제4호 발행

10월 11일 : 대학평의원회 교원평의원 선거 계획 안내 공지문 공지

10월 24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대학평의원회 교원평의원 선거 참여 촉구’

10월 26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법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요구,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7일 : 대학평의원회 교원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지문 공지

11월 11일 : 대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원평의원 선출

11월 28일 : 교수회 의장단과 총장 간담회

11월 29일 :故 성산 이영식 목사 41주기 및 故 창파 이태영 총장 27주기
합동 추모식 추도식 교수회 의장 참석

단과대학 평의원

(2022년 12월 5일 현재)

단과대학	회원수	평의원	
인문대	29	김봉정(글로벌언어문화학부)	민성기(글로벌언어문화학부)
법·행정대	33	고상현(법학부)	김동신(행정학과)
경영대	43	김영주(경영학부) 정준희(경영학부)	김현정(호텔관광경영학부)
사회과학대	46	이소영(국제관계학과) 정소희(청소년상담복지학과)	노성향(아동가정복지학과)
과학생명융합대	34	황근보(빅데이터학과)	사공동훈(생명환경학부)
공과대	54	황인조(환경기술공학과) 이우성(조경학과)	이미령(식품영양학과)
정보통신대	33	장중혁(컴퓨터정보공학부)	이강현(전자전기공학부)
조형예술대	27	박진우(산업디자인학과)	
사범대	70	권순우(특수교육과) 임석희(지리교육과)	박종근(지구과학교육과)
재활과학대	27	김환(작업치료학과)	김명권(물리치료학과)
성산교양대	2	박영식(자유전공학부)	
간호대학	11	강수진(간호학과)	
독립학부	12	여준호(AI학부)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5호

발행인 : 양진오(의장)

편집인 : 차정호(부의장), 이가연(부의장)

교수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수학습지원관 1층 1101호

사무실 053.850.5753 팩스 053.850.5754

홈페이지 <https://prof.daegu.ac.kr>